

박형수 법률사무소
 “고향 주민들의 상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고성고 24회 졸업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450-50(시외터미널 근처)
 상담문의 Tel : (033) 633-3635

군청에 귀농·귀촌 전담창구 개설 제기

2011년 군정설명 ·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 개최 ...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건의

2011년 군정설명 및 현안사항 청취 간담회가 지난 21일 오후 2시 고성군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군 단위 기관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군정홍보 동영상 시청에 이어 간부 공무원 소개, 2010년도 주민의견 수렴 추진 상황 소개, 201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군수 인사말, 주민의견 청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완식 고성군 노인회장은 “고성군과 속초시의 경계선에 위치한 7번 국도의 언덕을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또 새마을사업 때 만들어진 하수도 시설 개선과 고성군 노인회관 건립을 건의했다.

임복천 6.25참전유공자회 고성군지회장은 “6.25 참전공적비 앞에 시내버스가 서지 않고 있다”며 “보훈의 달인 6월 한달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시내버스가 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동주 고성군보범운전자 회장은



지난 21일 군청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2011년 군정설명 및 현안사항 청취간담회가 열렸다. 사진 오른쪽은 고성군 수화통역센터 최석찬 센터장이 수화통역사 신솔 씨로부터 수화로 회의 내용을 전달받는 모습. 최석찬 센터장은 2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 내용을 대부분 알아들었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은 “숲 가꾸기 간벌 때 아카시아 나무를 다 자르는데, 양봉농가들이 피해가 크다”며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네비게이션을 켜고 용대리에서 화진포를 찍으면 미시령과 속초를 경유해 돌아오게 돼 있다”며 “진부령을 통과해서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아 달라”고 건의했다.

박종락 간성읍번영회장은 “인구 유입정책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군청에 귀농·귀촌을 위한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각종 행정 편의를 제공한다면 인구 늘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영일 고성군번영회장은 “국도 46호선 진부령 4차선 확장

알프스 스키장 활성화, 국회연수원 고성 유치 문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달라”고 건의했다.

오매자 시각장애인연합회 고성군지회장은 “고성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은 많은데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없다”며 “3개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 건립에 신경을 써 달라”고 건의

했다. 한편 고성군은 이날 행사에 이어 22일부터 25일까지 간성읍 등 5개 읍·면을 순회하며 읍·면 단위 기관단체장들을 초청한 가운데 2011년 연초순방 및 현안사항 청취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광호 기자

소동령마을 자연생태우수마을 재지정

자연환경 · 전통문화 잘 보존 ... 환경부 3년간 관리 · 홍보

고성군 간성을 장신2리 소동령마을(이장 염상배)이 지난 2008년에 이어 올해도 자연생태 우수마을로 재지정됐다. 도내에서는 올해 모두 6개 마을이 신규 또는 재지정됐다.

자연생태 우수마을은 환경부가 지역주민의 자연환경보전 의식

양 및 자연자산의 자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전국에서 자연생태가 뛰어난 지역을 선정하는 제도로 3년간 지정·관리된다. 도내에는 총 21개 마을이 지정돼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소동령 마을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있고, 전통문화 보존활동도 활발한데다 지역주민협업체가 잘 운영되고 있어 이번에 재지정됐다”며 “지정서 전달과 함께 마을에 자연생태 우수마을 현판을 설치하고,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3년간 홍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도내 21개의 자연생태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인 뒤 이 가운데 2개 마을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동령마을 염상배 이장은 “우리 마을이 재지정된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예산지원이 되면 군비와 마을 자금을 들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염상배 이장



지난 21일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들이 소동령 마을을 방문해 자연생태마을 선정을 위한 현지 실사작업을 벌였다.

올해부터 새로 이장을 맡게 된 염 이장은 “소동령 마을은 백두대간 준령인 향로봉 산 아래에 자리한 청정마을이며, 마을 주변의 환경을 잘 지키고 가꿔 타 지역과의 차별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원시의 자연림이 잘 보전되어 청정하고 아늑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산림을 갖추고 있으며, 주민들의 인심이 소박하고 넉넉한 마을”이라고 자랑했다.

최광호 기자

영동OA사무기

☐디지털복사기 ☐소모품판매
 ☐인크젯 · 레이저 프린터 ☐팩스
 ☐복합기렌탈 ☐LCD프로젝터

681-7607, 010-3179-7607

읽고난 고성신문은 이웃과 함께 보세요